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오늘 예배 중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남녀선교회장단 모임이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겨울 수련회가 18일부터 19일까지 장흥(하얀집 펜션)에서 열립니다.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 및 행정총회가 16일(목) 저녁 6시 효창교회에서 열립니다.

안 쓰는 안경을 교회 로비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나라의 이웃을 위해 귀히 쓰일 것입니다.

겨울 밤하늘에 떠있는 별은 유난히 밝습니다. 별을 보며 묵상기도를 해 보십시오.

- 청과 찬양대원 명단 -

대장 : 김근중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김보라  
 소 프 라 노 : 이은자 오현정 정현주 김재영 이은실  
 메조소프라노 : 박성희 구명자 송양진 정미경 현우리  
 엘 토 : 최윤희 정옥영 최성애 유지은 홍선희 조정연  
 테 너 : 이광섭 안길상 이종현 장재영 조병익 김범진 전 용  
 베 이 스 : 장원호 안종일 조항범 이한림 정종삼 김근중 최영돈

식 당 봉 사 : 이형숙 곽혜자 권미숙 김수진 이미혜 최숙화 최재욱  
 2/19식 당 봉 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경선 구성실 김기성  
 오늘설거지봉사 : 박윤숙 김기성 최경미 이종배  
 다음 주 설거지 : 김영아 김수진 이준하 유상진  
 새 교 우 : 노명두 (7여)  
 떡 대 접 : 양상철 박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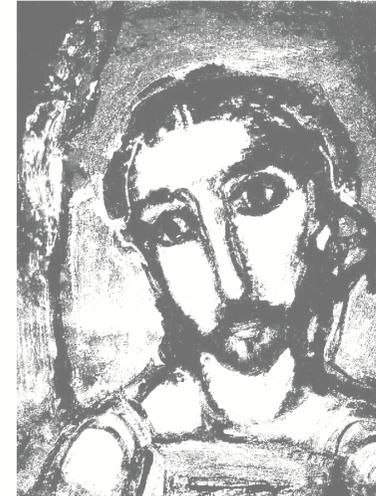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드는 우리에게 아침을 맞아 새로운 힘을 주시듯, 지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하늘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생기 가득한 호흡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맑은 눈과,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바른 세상을 위해 애써야 하는 정치인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주역이 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법의 근간인 정의보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이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남홍 선우영 김명순 이보영 김미순 김성한 조영순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윤하 김재환 김진선 김정길 최숙화 김중수 이순정  
 김필순 김현주 문복순 최현선 민병배 문현미 박윤숙 박준희 이기분  
 배삼순 송동준 김진경 안종일 정현주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이국노  
 김미화 이봉배 이윤석 박안수 이재문 이종현 이증자 김창경 전영자  
 정연희 정우선 최윤희 최재욱 이수정 최철수 곽권희 한상익 정영선  
 허신열 홍순구 안홍숙 황영준 무명2

### 감사헌금:

강순배 곽상준 최경미 김상아 김현수 문복순 최현선 박재란 양상철  
 서효진 오재영 이주영 유영남 이광용 형인순 이유일 김미희 이춘재  
 장영숙 정복순 정수복 장미란 조재훈 조항범 오현정 최 선 박소진  
 최윤서 테릭후사인 박근혜 한인철 한지희 홍순구 안홍숙 황경순 무명

### 녹색꿈헌금:

김은정 신영신 이건우 이정은 이진영 한양미 장원호 박성희 최주영  
 무명

### 생일감사헌금:

백묘현

	장혜숙	백혜숙	정두리	장혜숙
	노순옥	박성희	노순옥	이준림
	최희영	최경미	정복순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김진경	박경원
	정경례	진정숙	문금석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박효선	허정운	박효선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정영선	서정순	교회	정영선
	박혜경	조항미	임창선	정현숙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이범석	이근식	교회	교회
	손성현	곽상준	교회	교회

# 발톱 깎는 사람의 자세

유홍준

발톱 깎는 사람의 자세는/ 둥글다네/  
 나는 그 발톱 깎는 사람의 자세를 좋아한다네/  
 사람이 사람을 앉히고 발톱을 깎아준다면  
 정이 안 들 수가 없지  
 옳지 옳아 어느 나라에선  
 발톱을 내밀면 결혼을 허락하는 거라더군  
 그 사람이 죽으면 주머니 속에 발톱을 넣어 간직한대더군/  
 평생 누구에게 발톱을 내밀어 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  
 단 한 번도 발톱을 깎아주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  
 발톱을 예쁘게 깎아주는 사람은/ 목덜미가 가늘고  
 이마가 예쁘고 속눈썹이 길다더군 비가 오는 날이면  
 팔베개도 해주고 지짐도 부쳐주고 칼국수도 밀어준다더군  
 그러니 결혼을 안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 싸움을 할 수가 있겠어/  
 발톱을 깎는 사람의 자세는  
 고양이애 가깝고/ 공에 가깝고  
 뭉쳐놓은 것에 가깝다네 그는 가장 작고 온순하다네/  
 나는 그 발톱 깎는 사람의 자세를 좋아한다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십시오.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의 권세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크게 인식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며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뒤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마가복음 / 이범석 목사 기도 : 신진식 선생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공동기도	황경순 집사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홍순구 권사

2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범희 이근식 고숙이 박미영 신영신
	헌금위원	한상익 이순정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현자와 강자 그리고 부자

현자(賢者)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강자(强者)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부자(富者)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운명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유대 경전에 있는 것으로 인생의 지혜를 갈파한 명언입니다. 먼저 현자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배움으로써 얻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배우겠다는 그 자세, 마음의 겸허가 더욱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인생을 값지게 사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자는 불행한 일에서도 무언가 값진 것, 곧 진실을 배울 줄 압니다. 인간과 인생을 피상적으로 관찰하거나 알지 않고, 이전보다 깊이 그 신비를 알게 되고 거기서 오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에서 오히려 진실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그대를 속일지라도 불행은 그대에게 진실하다. 그대로 하여금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대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자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내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만큼 남을 이기는 쉬워도 자신을 이기는 것, 즉 자신의 무절제한 욕망, 이기적 자아, 나(ego)를 이기는 것은 힘듭니다. 사람들은 욕망이 달성되는 것을 성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에 따르다 보면, 결국 그는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차지한 다음에도 허무감만 남습니다. 자기를 이길 때에 비로소 행복합니다.

끝으로 부자는 자기 운명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 들으면 운명론자의 말 같이 들릴 수 있고, 진취성 없고 발전이 없는 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최선을 다하되, 분수를 알고 주어진 여건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백만장자가 된다고 해도 자기 운명에 만족할 줄 모르면, 참된 의미로 부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것에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합니다. 결국 마음의 부(富)인 것입니다.

### 1. 말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이 나온다. 양 귀로 많이 들으며, 입은 세 번 생각하고 열라.

### 2. 책

수입의 1%를 책을 사는 데 투자하라. 옷이 헤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리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다.

### 3. 노점상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깎지 말라.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 4. 웃음

웃는 연습을 생활화 하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이며 노인을 젊게 하고, 젊은이를 동자로 만든다.

### 5. TV(바보상자)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 동거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텔레비전에 취하면 모든 게 마비된 바보가 된다.

### 6. 성냄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 7. 기도

기도는 녹슨 쇠덩이도 녹이며 천년 암흑 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한 줄기 빛이다.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기도는 자성을 찾게 하며 만생을 요익하게 하는 묘약이다.

### 8. 이웃

이웃과 절대로 등지지 말라.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큰 거울이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묵욕하고 바르게 앉아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 봐야 한다.

### 9. 사랑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를 낮춤이 선행된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칠십 년 걸렸다.”